

家庭の友

四月號

内鮮一爐
同胞打
ついで丸

金取發行

家庭の友第十九號

昭和十四年四月一日發行

表紙

挿畫・컷三

鄭玄 鄭玄雄 三木弘
牧田秀苗 李承喆

口繪

皇國日本を象徵する大富士
演壇에서 文壇에서
銃後婦人は 무엇을 하고 있나

卷頭言 아해와 이룬
日本兵は何故強いのか

一月一文 세가지 희망

우리의經濟的살림

俞珏卿 (一)
高鳳京 (二)

慈愛錄

나의 자녀교육에 대한 주의
獨裁的敎育
圓滿하고健康한人間되기를
우리의 집 家庭敎育
學校敎育보다 家庭敎育
自立精神과個性發揮
良友를擇하도록

車士百 (一)
張德祚 (二)
宋今璵 (三)
鄭勳談 (四)
金鍾順 (五)
表景順 (六)
金東祚 (七)
金玉 (八)

寫眞記事

共同販賣以繼副業

各組合 (四)

忠烈崔通譯生の武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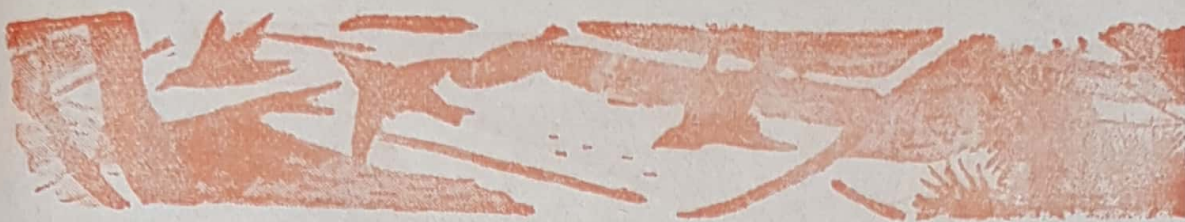
朴記者 (一六)

銃後半島愛國譜

여인의指導

性癖의矯正

金銀順 (元)





就學兒童을 두긴 父兄에게 金 亨 淑 (四)

衣 順 次 事 是 法 白 聖 和 (三)

동춘토터 봄철의 반찬 金 水 仁 (四)

六 味 八 珍 高 明 과 약 년 洪 善 杓 (四)

(漫 畫) 榮 養 을 차 저 서 (家庭의 友 考 案) 崔 永 秀 畫 (五)

환절기 전염병에 대하여 李 輔 英 (四)

冷水 摩 擦 시 작 할 절 기 (三)

陽歷 過 歲 에 南 極 人 (三)

숨은 이야기 沈 殷 澤 (三)

그 是 說 明 을 解 釋 安 章 熙 (三)

朝鮮 名 儒 傳 申 相 瓚 (三)

悲劇 野 談 매 바 위 申 鼎 言 (三)

萬 人 의 幸 福 朴 泰 遠 (三)

金活蘭先生의 婦人 身 上 相 談 (五)

李 仁 先 生 의 家 庭 法 律 相 談 (五)

기 막 히 는 우 (三)

主婦 婦 主 帖 (三)

讀者 의 便 紙 (九)

圖 記 (七)



◆編輯後記◆

南風이 부러오니 地殼을싸고잇
은氷雪을 녹이여헛치고 大地는
香氣를 풍기고 잇습니다。
南鮮에는 벌서 꽃 消息을傳하
니 제비가 薰風을따라 차저을
날도 머지안엿습니다。

X

帝國議會는 今年度戰費四十六
億圓을 通過식히여 事變以來戰
費總額은 實로 一百十九億圓이
란 巨額이요 日本國民一億同胞

●原稿募集

「우리婦人會의 자랑」「中堅指導人物의活動狀況」「農村(農家)更生實話 特히世上에 숨은 模
範人物 模範家庭」「銃後報國의情況」等 滋味있는記事資料와 그實情을엿볼수잇는 動的인寫眞
等原稿를 만히보내주십시오。

送付先

京城府竹添町一丁目

朝鮮金聯普及課家庭の友係

가 男女老少엽시 모조리 負擔
한대도 一人當百十九圓計算임니
다 우리는 이로악물고 發奮努
力하야 이巨創한 負擔을無難히
堪當해나갈만한 힘을걸너야할것
임니다。

더욱이 寒暑風雪무릅쓰고 봄
이와도 봄을享樂하지못하고 戰
線에서 全心靈全生命을바쳐 싸
우고잇는 皇軍勇士를 생각할때
이覺悟를 더욱 새롭게 甦게하
는 바입니다。

X

本誌는 朝鮮家庭雜誌의 先驅
로 四月에드려 發行部數一萬四

千을 增加하야 六萬四千部를超
過하고보니 더욱더욱 本誌의使
命이 큰것을 깨닫게되는바이요
本誌가 特히日本精神의涵養 時
局의再認識 家庭生活의 改善合
理化에 特히重點을두어 이번號
는 彩色를 一段濃厚히한것은
編輯子의 實로 자랑하는바임니
다 體裁도 菊版으로 一大躍進
을보게되얏고 또試験으로 各
種相談欄의 新設中堅作家의 短
篇도실니여 압호로는 各方面으
로 充實한 內容을만들기를 約
束하는바입니다。幸히 讀者의一
層의寵愛와 鞭撻을바라마지안는
바입니다。

「家庭の友」四月號(海月一四)

定價一部 十錢(郵稅共)

昭和十四年三月二十五日 印刷
昭和十四年四月一日 發行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十五番地

發行者 小口弘

印刷所 京城府水町一三五番地 會社 大和商會印刷所

印刷者 吉田寬二郎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十五番地 朝鮮金聯組合聯合會

代表電話平化門二七二〇番 振替 京第 三〇〇九番

購讀方法

本誌의購讀申込을 直接本會
로하시는데분에게서나 一部식
發送하여드리지 아니하오니
만다시 貴地金聯組合에申込
하시여購讀하십시오。



우리의經濟的살림

梨花女專 高 鳳 京

(4)

정제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잇면 사람은 정제라면
인색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하고 잇면 사람은 액긴다
는 뜻으로 아는 것도 참말 정제란 것이 인색한
것이요 액기는 것입니까? 물론 정제할하는 사람을 볼 때 인색한 것
자기도 하고 액기만 하는 사람 갖치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
라고 인색하고 액기는 것이 정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의
사가 환자를 수술하나라고 칼로 살을 찌기도 하고 뼈를 잘
내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라고 뼈차르고 살 찌는 사람이 의
사라고는 못합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더
한 방법을 써서 환자를 압호게 하든지 괴롭게 하든지 한 가지 목
적이 잇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색을 부린다는지 액기는 것도 확실한 목적
이 뚜렷이 없다면지 목적이 그릇되어 잇을 때는 정제라고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제란 대체 무엇일까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
는 대로 큰 효과를 잇자는 것이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자
본을 가지고도 리를 만히 남기는 것을 정제적으로 장사한다고
하고 또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살림사리를 잘하는 사람을 정제

적으로 살림사리를 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정제에는
두 가지가 잇는데 잘 벌어들이는 정제가 한가지고 벌어드린 것을 가
지고 잘 쓰는 정제가 또한가지입니다. 한가정에서 이 두가지 정
제가 늘 시행되고 잇는데 대개 남편은 벌어들이는 정제를 맛
혔고 안해는 쓰는 정제를 맛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인네
들의 살림사리란 것은 쓰는 정제입니다. 그런고로 이 지면을 통
하여 지금은 쓰는 정제에 대해서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후
시 여러분중에는 이러케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돈을 벌어들이기 어렵지 돈이 잇기만 하다면 쓰는
법을 몰나 못 쓸가. 갓흔 값이면 돈을 버는 정제를 배웠스면 조켓
다. 아모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쓰는 것은 벌어드리는 것만 큼 생
색이 없으니 쓰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버는 법이 더 급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가온대 그러케 말하는 것도 여러번들
잇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옷을 곱게 지으려고 바누질을 애
써서 하는 것은 맵싸 잇게 남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바누
질을 입부게 했더라도 남을 사탄이 업스면 그런 헛수고가 어뒤
잇겠습니까. 꼭 그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쓰기 위



家庭之友考案

榮養을 찾아서

(一)

해서 잘쓰는것을 목적으로 버는 것인데 쓰지 안코만 다면 애써서 버는 헛수고를 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버는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잘쓰는것은 더귀한일이요 더생색이잇는일입니다 참말이지 우리조선가정이 좀더향상하려면 벌줄아는자보다 쓸줄아는자가 더만히야할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살남하는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범도여 러가지가잇고 또한 각각살남의형편을따라서 해가는대로 지혜

가나는것이니 일일히 너무자세히들어가서 이야이하기는어려 우나 대강 두세가지로난호아 설명할것장호면

첫째로 예산이잇게써야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으로 길게말들은 아니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버려드린돈이 한 정이 잇는것임으로 쓰는것도 한정이잇서야 하겠습니까. 한 정이잇는것을쓰려니까 사고싹흔것을다 살수가없고 미리조개 여본후에 제일필요한것부터 먼저 차례로 쓰도록해야합니다

또 당장에쓰지안트라도 얼마후에 꼭써야할것 이분명하면 지금사고싹흔것을 못사드라도 액 겨두었다가 그때에사써야만됩니다. 그반대로예 산을세우지안코 주머니집작으로 써가는대로써 가다가 업서질때 그만둔다면 주머니에돈이잇 슬때에는 별노필요치안은물건도 눈에끌녀 사 쓰게되고 또정말꼭써야할필요한때도 주머니가 뭉치면 못사는일이생겨서 참으로 살남은 뒤 죽박죽이 되는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업슴으로 만히버는사람은 좀더 욕망을만히만 족식힐수잇고 좀덜버는자는 욕망을 조금밖에 만족식힐수업지만은 그범위안에서라도 좀더만 히 만족을어드려면 예산을세워서 그대로 실행할수있게되고 또저축을 꼭해야 합니다. 저축은 쓰고남는것을 처치하는것이 아니라 아모리 흠어렵드라도 압날에 더어려울것을내 다보고 슈림해두는것입니다. 마치 기차타러나

家庭之友考案

榮養을 찾아서

(二)



가는사람이 차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는데 아모예산업시 천천히거려가다가 방금기차가 움직이려는것을보고야 뚝다면은 아모리 허리가 결니게 뒤편라도 차를노치기 쉬운것과 갓 혼것입니다. 미리부터차시간이 얼마남았는가 헤아려 처음부터 조금빠른거름을거르면 나중에 숨이차게뛰지안어도 차를넌넌히 탈수가있습니다. 그와마찬가지로 압날에 얼마나절박하고 긴급히쓰일지몰르는것을 지금은 쓰나마나한곳에 생가

없이쓰다가 병자나 장례나 혼인이나 교육에 급한돈이필요할때 울며애를쓰는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밖것『일전』하고 일전을 업수히넘이며 웃는자가 일전이업서서 울때가잇스리라는속담이잇는것도 그뜻입니다 수입이적으나만호나 예산을세울때 반드시 저축을먼저때여 노코 다박할때 오천이나십전을 유감업시쓰는것은 아모일업슬때에 오원이나 십원을쓰는것보다 더보람잇고 생색잇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것을생각하면 압날에 큰피를을막으려고 적은피를을참으며 저축하는것이 무엇이그리 어렵다고하겠습니까. 제일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축에는 돈으로하는법도잇고 물건으로하는법도잇는데 물건은 사서잘보관하려면은 첫째로 자리를만히잡고 또 잘못건사하면 상하기가쉬우며 이사할때 가지고단이려면 부비가들고또 물건이 날거지고됩니다. 그러나 돈을저축하면 그런 건사하기귀찮은일도없고 도적마를범녀도없고 오히려 리자가늘어서 얼마나 리가되는지몰으겠습니다. 희끌모아 태산된다는격으로수입생길때마다 얼마씩이라도 조금씩때여 저금을 꾸준히하면 나중에 큰재산이될뿐만안이라 누가 그저준것까지 감사하게생각되고 항상 안심되는생활을 할수가잇는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추의치안으면 안될것이란가지 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갓흔 바드러운수업을가지고도 잘쓰려면 액 겨쓰는수밖에업다하여 무엇이나 액기면다-되는줄알고 눈곱 감고 사지안으려고만 하기가쉽습니다. 그러다가는 작고악가 운생각만들어 맛당히살것도못사고 망서리다가 몇배나 손해 를보는때가만듭니다. 가령말하면 기와장한개가 깨여졌을때에 꽃고칩스면 조홀터인데 그기와장장을겨서 못고친까닭으로기

家庭之友考案

榮養을 찾아서

(三)



등이씩고 들보가씩어서 접이문혀쳐내린다면 얼마나 어리석 은일입니까 액기치안을꼭에액기는것은 여자큰불정제가안임니 다 조선속담에도 닭잡을찬치에 소잡는다말이 잊지안습니까 언체그까짓적은대다가 다-정신을쓰며 돈을드릴수가있나하고 내버려두다가 큰손해를당하는때가 여간만치안습 다. 너머도 사소한례를드는것까지만은 만약 어린아해들에게 일일이 손 수건을해줄형편이못된다고 손수건을들여주지안으면 코를씨슬

곳이없어서 애를쓰다가 결국 저고리고름에나 치마에나 아모대나 닥치는대로문질너바리고맘 니다. 그러면 손수건한개액겨서 옷이전부코수 건이될터이니 매일빨수도업고 잘어일힐수도업 슬때에 그아해는 코수건옷을업고단이는것이될 터이니 얼마나 불경제가되는지 물으것습니까 그와마찬가지로 방안에 쓰러기통을 준비해노 치 안음으로 종이부스러기나 여러가지 지저 분한폐물이 이구석저구석 굴너다니는것은 쓰 러기통하나액겨서 원방안전체를씨러기통을만드 는것과갓습니다. 원방안이 쓰러기통이될때 위 생에해로웁고 보기실흔것은 물론이지만은 사 람의옷도 속히더러워집니다. 옷이속히더러워져 서 빨내를자조하게되는것도 여러가지로불정제 임니다. 그뿐만안이라자녀교육에도 그러습니 다 너무액진다고 꼭해주어야할것을안해주면 때를 노쳐바려서 후에는 아모리해주려고 애써도어

家庭之考察案

營養을 찾아서

(四)



찌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액진다는 것이 한도를 지나가면 그처럼 불제가 되는 것까지
 물건을 악가워하며 탕비치 않는 것이 정제일 경우도 있지만은 그
 것도 도수를 지나치고 또 목적에 합하지 않게 악가워하다가 가는 도로
 혀 크게 불제가 될 것입니다. 가령 말하면 음식이 실컨 먹고 남았
 슬 때에 두엇다가 먹을 수는 업는 형편이요 그러하고 내버리기
 는 악가워서 억지로 먹어버리는 일이 만흔데 실컨 먹은 후에 그

서 몇십년 지나면 더 살수 없다는 한정이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사람도 위생을 잘하면 더 오래 살 수 있고 위생을 못하면 병이나
 서 일찍이 죽는 것과 같지 집이란 것도 항상 자조자조도 보고
 수리를 하고 매일 소제를 잘하면 집이 모양 있고 깨끗하고 돈도
 덜 들고 오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동안 내버려두다가 집
 이 새게 되든지 한 편이 문혀져 바릴 때에 처음으로 수리를 할
 녀고 하면 비용이 더 만히 들고도 집 모양이 매단히 그릇되어 집

이상 더 먹는 것은 몸에 여간 해로운 것이 안입니다
 그 음식이 약갑다고 내버리지 안코 내몸에다가
 과한 부담을 식혀 몸을 괴롭게 하고 해하는 것은 일
 마나 어러석은 지물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몸이 압혀서 약을 사먹는 다든지 일을 못
 한 다든지 하는 것이다 불제입니다. 또 상
 한 음식인 줄 알면서도 악가워서 먹어버리는 것 역
 시 마찬가지로 불제의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살림을 정제적으로 하는 데
 는 정리의 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는 집이라든지 또한 매일 쓰고 지내는 가
 구들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부속품 전부를 할
 수 있는 대로 오래동안 가지고 깨끗하고 보기도
 게가지는 것이 여러가지 방면으로 정제적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달하려면 규모있게 정리를 하
 며 보관하는 법을 잘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사는 집으로 말하면 사람의 목숨과 같하

니다. 그러나 조금만 부지런하게 매일집을 도라 보기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집을 잘 보존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병난 후에 약을 먹으면 약값이 만히 들고도 사람이 병에서 일어나 약해지고 매일 조금씩만 부지런히 시간을 내어 체조를 하고 목욕을 하면 병도 덜 나고 훨씬 건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가구입니다. 어떤 실험가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를 매일 먼지를 털고 닦아서 전사하는 것이 오래간만에 한번씩 털고 닦는 것보다 몇 배나 오래 쓰고 윤택이 난다고 합니다. 오래 못 쓰면 자조사드려야 될 터이니 우리가 구를 오래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여간 큰 정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의복의 정리입니다. 의복을 보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돈을 들여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드리고도 늘 보기 좋게 깨끗하게 하려면 그 옷을 전사를 잘 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잘 정리를 하고 보관을 해야 합니다. 물논어려운 법도 있고 약과 도구가 있어서 할 것도 있지만은 아조 손쉽게 일상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럽게 머리와 손을 써서 의출하고 도라올 때는 아모리 급하더라도 먼지를 잘 털고 모자나 목도리와 구두도 잘 솔로 털어서 깨끗한 것은 아모리 급할 때 시 잘 개켜서 두엇은 곳에 다시 돌린 후에 다른 일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시 입을 때에 깨끗하고 구김살도 없어서 다시 때림질할 필요 가 없으니 시간도 덜 걸리고 다림이 비용 안 드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 때림질 노인하여 옷감이 약하여 지기를 덜 하니까 꽤 오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발도 그러합니다. 우리 조선 가정에는 집집마다 신장이 없

는 까닭으로 신이 마루 밟히 만히 노려 있고 당장에 신지 않는 신도 그냥 예비로 노려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일 먼지가 안 붙는 만 아니라 마루에서 내려 오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밟기가 쉽습니다. 또 후시 비라도 드려 치면 공연히 잘 신지도 않는 신이 축질 업시 그곳에서 늙어지고 해여지고 말아서 언제 한 번 밟으면 신도 못도 못하고 땅칠 때가 많습니다. 신어서 하여 드리는 것보다 전사 잘못해서 버리는 수가 많으니 얼마나 불 경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쓰고 사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부끄럽게 손질을 잘 하면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돈만이 벌어 자조사들이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사드리기 만하고 잘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것은 구멍 뚫린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마즈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물건을 사 드릴 때에 하실 주의의 몇 가지입니다.

물론 살림하시는 분은 충분히 경험하시겠지만은 너무 쌀 것만 눈압해 싸다고 살 때에는 빚싼것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쌀 때에 가만 씁니다. 그리고로 값이 쌀 물건을 대할 때는 아모리 맘이 급한 때라도 꼭 그 원인을 살펴보고 사서야 실패가 없습니다. 대단히 값싼 옷감은 때때로 작은 것이 있어서 빨려 고물에 너호면 전질수 없게 되는 때가 많으며 가구도 쌀 것은 너무 속히 오그라질 때가 많습니다. 식료품도 상하기 쉬운 종류가 너무 쌀 때에는 의심스러운 것이니 천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까짓것 짚는다. 안다고 하시겠지만 물나서 속는 것이 아니라 알고 도속는 것임으로 더한 심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빚싸다고 반드시 다 조흔 것이 아닙니다. 식료

몸중에 실과나 채소로 말하면 비철관계로 대단히 빗싸기 쉽고 또 는 먼 곳에서 가져옴으로 운반비율관계로 빗쌀때도만 씹는다. 그러면 그런 원인을 다 안후에는 하릴 비싼 것이 더 조흔 것이 안이라 는 것을 알고 비철식료품 원거리에서 오는 것을 피하고 될수잇스면 철따라나는 것으로 싱싱하고 싸것을 사서 양분잇는 료리를 해먹는 것이 대단정제적입니다. 겨울에 딸기나 수박을 먹기도 하나 그것은 영양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별식으로 귀한 맛으로 먹느니만큼 정제와는 거리가 먼 것임니다 의복감은 음식처럼 철과 비철의 큰 구별이 없지만은 외국서 온것은 국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빗싼 값 이상으로 오 래입는 다는지 다른 장치가 잇다면 물을 거니와 운반비 때문에 빗 싸게 먹었다는 것을 잘 알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탄자흔것은 만히 될요되는 겨울이 대단히 빗싸고 과히 필요치안은 때가 씹니다. 그런고로 자본을 좀 잡거두더라도 미리 사들수만잇스면 사두는 것이 그돈을 다른 데 리용해서 리 자잇는 것보다 훨씬 리익될때가 잇습니다.

또 변하지안을 물건으로 보관하기도 관계치안코 함꺼번에 사는 것이 훨씬쌀때에는 그러케하는 편이 물론 정제입니다. 단지 함꺼번에 사노홀돈이 준비되겠느냐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기에 약가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세울때에 이여러가지시 절과 분량을 따라 함꺼번에 쓸곳은 매달 미리조금씩 저금해 두었다가 쓰도록 하여야만 함꺼번에 큰힘드는 것을 덜수가잇습 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가정정제란 눈에 보이지도안는 지극

히적은곳에 성공도잇고 실패가잇는 것이며 취지안코 부끄런 히 머리를돌니고 손을돌니는대서 큰효과를 얻게되는 것임 니다. (以上)

主 婦 手 帖

◇숯불피울새 겨울에는 불씨를 우에노코 여름에는 불씨를숯 밑헤노코피우는것이 불피우는 비결이다

◇손가락에무든「잉크」는 석냥 (燐寸)에무든약을 물에적시여 가지고 비빈다음 물로써츠면 된다

◇동백기름을 五 송진(松脂)가 루를 八 의비례로섞거 불에 고리여가지고 식힌다음 조희 에발나노호면 훌륭한 과리잡 는돈々이 (蠟取紙)가된다

◇열(熱)의흡수량(吸收量)은 점 정빛이 흰빛의 배이상 그다 음이 갈색 적색 녹색 황색 의순서이요 백색이 가장 찬 빛같이다

◇사진이씨드렸을때는 암모니아 를 더운물에식거 보드라운 홍점으로 곱게다져내다음 따

른홍점으로 물끼를업새면 아 름다워진다

◇염서를쓰다가 잘못셀새 위 선 창칼로살짜글거버리고 뭇 은풀칠을해서말니면 아무에게 보내도 실패되지 안홀만치된 다

◇「알미늄」으로만든 그릇을다그 려면 굵은사면기를 두치잡되 게잘너 철사나노끈으로 서너 곳에 단단히 줄나매여가지고 쓰면 그릇도상하지안 一 정제 적이다

◇사가남비를다그려면 겨란셀데 기를 부셔너코 솔로문지르면 빛도나고 탄자리도업서진다

◇신문지 박이는잉크에는 벌베 가시려하는 석유가 석기였습 으로 옷을싸두면 해충에방 이되고 신문지를포겨노코 먼 도칼을갈면 날이잘손다